DS INVESTMENT & SECURITIES

Sector Comment

조선

LNG/해양방산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2025년

미국 AI산업에 대한 우려로 LNG 벨류체인 주가 하락 → 매수 기회

20일 조선업종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딥시크 이슈 이후 Grok3로 인한 LLM 커머디티화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Palantir -10%, Arista Networks -6% 등 AI 산업 관련 주가 조정과 Nvidia 실적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1월과 2월 Indepth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1)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의 견제 대상은 중국이 될 것이며, 미국은 AI를 활용한 무인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2) 미 국방부의 C4I(무인), Space(무인·공중전), Shipbuilding(해전)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Aircraft 등 기존 클래식 무기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AI는 민간뿐만 아니라 방산 영역에서도 활용이 확대되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4)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이슈가 대두되고, 가스 발전 증가로 인해 미국의 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제조를 허가하고, 동시에 중국 조선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황의 상승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가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수급 부담과 AI 산업에 대한 기우로 인한 일시적인 기간 조정일 뿐, 앞서 제시한 거대한 모멘텀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LNG와 해양방산 모멘텀

(1) 지난 해 초 바이든 정권에서 LNG 수출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Commonwealth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또한 미국 육군 공병대는 긴급 허가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600여개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목록(LNG 터미널, 천연가스 발전소 등)을 공개했으며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 올해 첫 미해군 MRO 발주가 시작된다. 또한 18일 상원의원인 마크 켈리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여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대미 투자를 밝히며 미국 조선소 인수 or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제시한 모멘텀은 2025년 현실화될 것이다.

업황 사이클은 회복 단계로 피크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후

지난 조선업 상승 사이클의 핵심 동력은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커머디티 슈퍼 사이클이었다. 반면, 이번 조선업 상승 사이클의 대주제는 미·중 갈등에 기인한 해양 방산과 AI로 인한 LNG 슈퍼 사이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멘텀은 2025년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이클의 정점은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한다.

양형모 중공업·미국
02-709-2660
yhm@ds-sec.co.kr

강태호 RA
02-709-2666
kth@ds-sec.co.kr

2025.02.21

비중확대 (유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